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고 은 애

2020년 8월

#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정 숙

고 은 애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고은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서 미 정

위 원 \_\_\_\_\_ 오 진 숙

위 원 \_\_\_\_\_ 김 정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년 6월



# 목 차

국문초록 .....	iv
<b>I. 서론 .....</b>	<b>1</b>
<b>II. 이론적 배경 .....</b>	<b>4</b>
1. 금융이해력 .....	4
1) 금융이해력의 개념 .....	4
2) 금융이해력의 측정 .....	5
2. 돈에 대한 태도 .....	7
1) 돈에 대한 태도의 개념 .....	7
2) 돈에 대한 태도의 측정 .....	8
3. 물질주의 성향 .....	11
1) 물질주의 성향 개념 .....	11
2) 물질주의 성향의 측정 .....	12
4.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4
<b>III. 연구방법 .....</b>	<b>16</b>
1. 연구 문제 .....	16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	16
3. 척도 구성 및 내용 .....	17
4. 분석 방법 .....	20

<b>IV. 분석 결과 및 논의</b> .....	<b>21</b>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1
2. 금융이해력에 대한 분석 .....	23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돈에 대한 태도의 차이 .....	29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질주의 성향의 차이 .....	30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융이해력의 차이 .....	32
6.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34
1) 독립 변수의 상관관계 .....	34
2)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36
<b>V. 결론 및 제언</b> .....	<b>39</b>
<참고문헌> .....	43
Abstract .....	49
<부록> .....	52
설문지 .....	53

## 표 목차

<표 1> 돈에 대한 척도 .....	8
<표 2> 돈에 대한 태도 신뢰도 .....	18
<표 3> 물질주의 성향 신뢰도 .....	19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2
<표 5> 금융이해력 수준 .....	23
<표 6> 금융지식 측정 .....	25
<표 7> 금융태도 수준 .....	26
<표 8> 금융행위 수준 .....	27
<표 9>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돈에 대한 태도의 차이 .....	29
<표 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질주의 성향의 차이 .....	31
<표 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융이해력의 차이 .....	33
<표 12> 독립 변수의 상관관계 .....	35
<표 13>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38

국문초록

##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고 은 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정 숙

이 연구의 목적은 소비가 활발한 20세~64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라 돈에 대한 태도, 물질주의 성향, 금융이해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인의 돈에 대한 태도, 물질주의 성향, 금융이해력을 파악하고,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서울, 제주, 경기 지역의 20세~64세 성인을 대상으로 IRB 승인 이후(승인번호: JJNU-IRB-2020-015-001)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총 38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12.0K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돈에 대한 태도, 물질주의 성향, 금융이해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Scheffé의 다중 범위 검정을 하였고,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분석과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금융이해력 수준 측정 결과, 금융지식은 평균 59.59점, 금융태도는 53.19점, 금융행위는 74.66점으로 총 합산한 금융이해력 점수는 63.78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돈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돈을 미래 안전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에는 교육 필요 여부, 교육 수준, 금융교육 참여 경험 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감정 충족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은 성별, 금융교육 참여 경험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돈을 인색함과 불신감으로 생각하는 경향에는 교육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물질주의 성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성공추구 물질주의 성향에는 성별, 결혼 여부, 직업, 금융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행복추구 물질주의 성향에는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금융교육 필요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금융이해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금융지식은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 금융교육 참여 경험, 금융교육 필요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금융태도에는 연령,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 금융교육 필요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금융행위에는 결혼 여부, 금융교육 필요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한 결과, 금융지식은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성공 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금융지식의 점수가 높았다. 금융태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돈을 감정 충족 도구로 생각할수록, 인색함과 불신감이 높을수록, 미래 안전 도구와 불안의 원천은 낮을수록 금융태도의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금융행위는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금융행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돈에 대해 미래의 안전도구나 불안의 원천으로, 감정 충족 도구로 생각할수록 금융행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고,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인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돈에 대한 태도, 물질주의 성향, 금융이해력,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위



## I. 서론

최근 인터넷 은행, 디지털 금융 등이 발전함에 따라 금융 환경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 새롭고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파밍 등)나 금융피해(DLF 사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 또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는 인간의 생존에까지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도 나타나고 있다.

김정환(2016)은 금융시장의 빠른 변화와 금융 부문의 복잡성 및 다양성과 금융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이해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와 채무 의사결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금융교육과 금융이해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최현자·조혜진, 201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전 세계 정책 당국은 국가 간이나 국가 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김정환, 2016).

미국 금융교육 전문기관인 Jump\$tart의 보고서(1997)에서 'Personal Financial Literacy Survey'는 미국 청소년의 금융 문맹 실태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금융 문맹이 많을 경우,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 되거나 사회적인 성장기반도 약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금융 문맹(Financial Illiteracy)은 일상생활과 산업 분야에서 금융 비중이나 그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돈의 소중함과 관리 방식을 모르고,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금융감독원 금융 용어사전).

김자봉·김정환(2017)의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이해력 저하 현상이 나타났고, 직장인과 노령층에 대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노령층에 가까울수록 금융사기 뿐만 아니라 소득, 의료의 피해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직장 내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은퇴 이전 금융

이해력의 향상과 노후대비를 위한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우리나라 성인(만 18세 이상~만 79세 이하 성인 2,400명 대상)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평균 62.2점으로 OECD 평균(64.9점, 2015년 16개국)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앞으로 경제·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법)이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었고, 2021년 9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금융이해력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현자·조혜진(2011)의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 증진을 통한 금융역량 강화는 금융시장에서의 소비자 문제를 줄이고 경제생활과 재무관리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경제생활 중 소비생활의 영역은 근본적으로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반영이며, 돈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돈에 대해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소비생활 태도를 파악하고, 소비자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된다(김정훈·이은희, 2002).

현대 사회에서 돈은 인간의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이다.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여 안전과 안락함, 자유, 힘, 심리적 만족감 등을 얻는다(백은영, 1997). 사람들이 왜 돈을 추구하고,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인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돈에 대한 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Furnham, 1998). 이후, 소비자 행동과 재무의 관점으로 확장되었으며,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돈에 대한 태도가 개인의 심리 변화뿐 아니라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재무 행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돈에 대한 태도를 연구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최재경, 2016). 김경자(2003)의 연구에서는 돈에 대한 감정적인 의미 부분은 태도의 기본적인 측정 차원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대부분이 돈이라는 중요한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돈에 대한 태도가 물질주의 가치 성향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홍은실·황덕순·한경미, 2001).

김미선(1996)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성향이 돈에 대한 태도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바람직한 금전 관리 행동을 저해한다고 하였으며, 물질주의가 충동구매 행동에 가장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하였다. 이는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른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교육수준, 소득, 직업이었다. 연령,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백경미, 1995; Belk, 1985), 소득이 낮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은 높게 나타났다. 송순·신현실(2002)은 대학생의 물질주의를 연구한 결과 용돈, 자아 존중감, 부모의 물질 수준,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비가 활발한 20세~64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의 돈에 대한 태도, 물질주의 성향, 금융이해력 등을 파악하고,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인들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금융이해력

#### 1) 금융이해력 개념

금융이해력은 국가 및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Finanacial Quotient 또는 Financial Literacy라고 쓰이며, Finanacial Quotient는 금융 관련 지식과 이해력을 지수화한 개념으로, Financial Literacy는 금융 전반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으로 볼 수 있다(이상택, 2007; 양혜경, 2018).

이와 같이 금융이해력을 금융 지식과 이해력으로만 한정하기도 하고,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태도, 행동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선언하였으며, 금융교육 협의체를 결성하였다. 금융이해력(Financial Lieracy)을 건전한 금융의사결정과 금융웰빙의 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금융인식,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동의 조합으로 정의하였다(김자봉·김정환, 2017).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2003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조사하였으며,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Finanacial Quotient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FQ는 금융이해력 지수를 의미하며, 개인의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와 금융지식의 실제 활용능력 수준을 말한다(금융감독 용어사전, 2011).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은 개인의 금융 및 재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금융감독원, 2017). 문세영(2014)은 개인 재무 관련 지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아는가 하는 개인의 역량으로 정의하였으며, 김영균(2011)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와 금융지식의 실제 활용능력 수준의 정도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금융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태도, 행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 2) 금융이해력 측정

금융이해력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다.

금융교육 국제네트워크(OECD/INFE)에서는 금융이해력을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동 3개의 범주로 구성하고, 이를 종합하여 금융이해력 지수를 측정하였다. 금융지식 측정은 이자율, 위험 및 수익, 인플레이션 등의 개념과 수리적 지식을 포함하였으며, 금융태도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미래를 선호하는 지 여부, 현재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금융행동은 금융 생활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평소 금융 생활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평소 상품 구매 전 금융상황을 고려하는 지 여부, 청구서 기한 준수 여부, 장기적 금융목표 설정 여부를 측정하였다(김자봉·김정한, 2017).

금융감독원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해력 측정을 2003년부터 매년 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득의 이해, 재무관리의 이해, 저축과 투자의 이해, 지출과 부채의 이해 등과 관련된 금융지식 및 이해도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금융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영역을 규명하여 향후 체계적인 금융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금융감독 용어사전, 2011).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2018)에서는 금융교육 국제네트워크(OECD/INFE)의 2015년 조사표를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를 측정하였다. 금융이해력을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로 구성하였으며, 금융지식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하고 적절한 정보에 입각한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으로, 금융태도는 소비와 저축, 현재와 미래, 돈의 존재 가치 등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며, 금융행위는 재무계획과 관리, 금융상품 선택 등 금융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2012년을 시작으로 2016년, 2018년도에 전국민 금융이해력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2018년 기준) OECD의 평균(64.9점, 2015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식(65.7점), 금융행위(59.9점), 금융태도(61.3점)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금융행위와 금융태도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우리나라 성인 대상으

로 경제·금융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한 김미리·김시월(2011)의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 대학생들의 돈 관리 이해영역 부분의 점수가 55.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금융교육 효과를 높이는 효율적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금융이해력이 향상될수록 재무 설계나 재무관리 행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조혜진·장연주, 2015), 최아름·구지현(201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정도에 따라 재무관리 행동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금융이해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바람직한 재무관리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이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의 하위 구성 요소를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위로 구성하였다. 금융지식은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금융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의미하며, 금융태도는 소비와 저축, 현재와 미래, 돈의 존재 가치 등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태도로, 금융행위는 재무계획과 관리 및 금융상품 선택 등 금융과 관련된 소비 활동을 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 2. 돈에 대한 태도

### 1) 돈에 대한 태도 개념

박명숙(2012)은 돈은 소비생활을 하는 중요 수단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도구라고 정의하였으며, 돈에 대한 태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정훈·동환숙(2002)의 연구에서는 돈은 인간의 경제 행동을 유발하는 촉매제로 활용되기도 하며, 경제생활과 관련한 매개 변인이자,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돈은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을 의미한다(표준국어대사전).

돈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특성과 사회화 과정의 결과로 형성된 독특한 경제활동의 유형이자, 개인이 소득을 얻고, 소비하는 형태의 모든 것을 말하며(황종귀, 2006), 김정자(2003)는 돈에 대한 태도를 돈에 부여되는 정서적 상징적 의미나, 사람들의 견해로 각 개인의 기질이나 인생 경험 혹은 주어진 환경 여건에 따라 돈에 대한 각기 다른 심리적, 상징적 의미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하게 형성되는 개인의 돈에 대한 생각, 느낌, 행동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홍정림, 2014).

최재경(2017)의 연구에서는 돈에 대한 태도를 개인의 실질적인 의식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의 재무의사결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인 변인 중 하나라고 정의하였다. 돈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이 돈에 대한 가치관과 성향으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3가지 구성 요인으로 나누었으며, 돈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은 소비자 개인의 실질적인 의식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하면서도 돈에 대한 태도의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로 실용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이 연구에서는 돈은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가 되고 교환을 매개하며, 재산을 형성하는 대상으로 사용하는 물건으로 정의하였으며, 돈에 대한 태도를 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 2) 돈에 대한 태도 측정

돈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가 먼저 진행되었고, 행동적인 연구로 확장되었다. 이후, 소비자와 재무적인 관점으로 세분화되어 연구되었으며, 1980년대 해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이미 개발된 척도를 가지고 연구 주제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최재경, 2016). 특히, 최재경(2017)은 돈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투자 행동 관련 연구를 하여 척도를 개발하고 국내 및 국외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대표적인 3대 척도를 제시하였으며,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돈에 대한 척도

척도 명	척도 개발연구자	하위요인	
MAS (Money Attitue Scale)	Yamauchi& Templer(1982)	힘/특권(Power/Prestige) 보유/시간(Retention/Time) 불신감(Distrust) 품질(Quality) 불안(Anxiety)	
MES (Money Ethic Scale)	Tang(1992)	정서적요소 (Affective)	선(Good) 악(Evil)
		행동적요소 (Behavior)	예산(Budget)
		인지적요소 (Cognitive)	성취(Achievement) 존경/자아존중감 (Respect/Self-esteem) 자유/힘 (Freedom/Power)
KMSI-R (Klontz Money Script Inventory-Revised)	Taylor, Klontz&Britt (2015)	회피(Avoidance)	
		숭배(Worship) 지위(Status) 경계(Vigilance)	

출처 : 최재경(2017), 돈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투자 행동에의 적용,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0. 재구성.



Yamauchi과 Templer(1982)가 개발한 MAS(Money Attitue Scale)에서는 돈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을 힘/특권, 보유/시간, 불신감, 품질, 불안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Tang(1992)이 개발한 MES(Money Ethic Scale)는 하위요인을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요소로 구조화하였으며, 세부 요소를 정서적 요소에서는 선과 악, 행동적 요소로는 예산, 인지적 요소는 성취, 존경/자아존중감, 자유/힘으로 나누었다. Taylor, Klontz&Britt(2015)가 개발한 KMSI-R(Klontz Money Script Inventory-Revised)은 하위요인을 회피, 숭배, 지위, 경계 4가지로 구성하였다.

홍은실(2005)은 돈에 대한 태도 하위요인을 자유/힘, 선, 성취, 존경, 악의 5가지로 구성하였다. 김경자(2003)의 연구에서는 Tang(1995)에 의해 개발된 돈에 대한 태도 척도(MES)를 변형하여 ‘가치로운 생활 도구’, ‘성공의 척도’, ‘사회적 수단’, ‘안전의 도구’ 4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여 대학생들의 돈에 대한 태도와 개인 재무관리 실태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학력, 성장지역 같은 변수들이 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을 성공의 척도, 감정 충족 도구, 불안의 원천, 인식한 태도, 안전의 도구 5차원으로 구성하였고,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태도였으며, 다음은 불안의 원천으로 여기는 태도, 감정 충족 도구로 여기는 태도였다. 돈에 안전의 도구, 불안의 원천으로 여길수록 바람직한 금전사용 행동을 보였다(홍은실·황덕순·한경미, 2001).

허경옥·백은영·정순희(1997)의 연구에서는 돈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을 감정 충족 도구, 미래의 안전도구, 불안감, 인식함, 성공의 척도로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연구 결과, 돈을 미래의 안전도구로 여기는 집단은 안전자산에 투자가 많은 편이었고, 인식함은 사금융 보유액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장 많았다. 돈을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집단은 안전자산에 저축하고, 돈에 불안한 태도를 지니는 유형 군집은 보험을 드는 비율이 가장 높고 위험자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낮은 편이라고 하였다.

여대생들의 돈에 대한 태도와 경험을 연구한 김정훈·정혜정(2002)은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이 돈에 대한 태도와 경험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김정훈·동환숙(2002)은 IMF 경제 위기 전후 대학생들의 돈 관련 태도와 행동 차이를 연구하였으며,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권력·힘, 강박적 태도, 금전 관리,

유희적 태도 등의 4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IMF 시기 이전에 비해 IMF 시기 이후가 돈에 대한 태도 변화가 나타났으며, 유희적 태도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경제 위기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유희적 태도였으며, 그다음은 금전 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홍은실(2005)의 연구에서는 Tang(1992)의 MES 척도를 사용하여 행동적 차원을 삭제하고, 감정적 차원(선, 악)과 인지적 차원(성취, 존경, 자유/힘)에 해당하는 5가지 영역의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이후, 홍은실(2014)은 물질주의 가치 수준이 높으면서 자존감이 높은 여성 소비자는 쾌락적 가치와 과시적 가치 같은 소비 가치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돈에 대해 긍정적인 선호를 지니고 부정적인 태도는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물질주의 경향은 학력이 높은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미래에 더욱 증가될 것이라 하였다.

돈에 대한 태도의 요인을 성공의 척도, 미래 안전의 도구, 불안의 원천, 인정받기 위한 수단, 인색함과 불신감, 선호, 회피와 배척으로 총 9가지 요소로 구성한 강은성(2019)의 연구 결과, 돈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 소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으며, 그중 돈을 회피와 배척으로 보는 태도는 청소년 소비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고 하였다. 성공척도와 인정받기 위한 수단은 과시소비와 모방소비에, 미래 안전 도구는 충동소비, 합리적 소비에, 불안 원천은 충동소비 모방소비에 인색함과 불신감은 충동소비, 모방소비, 합리적 소비에, 선호는 비합리적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이 연구에서는 돈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을 미래 안전 도구, 불안의 원천, 감정 충족 도구, 인색함과 불신감으로 총 4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하였다. 미래 안전 도구는 미래를 위해 저축이나 계획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안의 원천은 돈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감정 충족 도구는 기분에 따라 돈을 사용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인색함과 불신감은 돈에 대하여 인색하거나 불신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 3. 물질주의 성향

#### 1) 물질주의 성향 개념

물질주의 성향은 물질주의, 물질주의적 가치관, 물질주의 성향 등 여러 가지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채로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성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Belk(1985)는 물질주의 성향을 물질을 소유하려는 강한 욕망과 물질을 삶의 중심에 두고 추구하려는 가치관이라 하였으며, Richins과 Dawson(1992)의 연구에서는 돈과 물질을 소유하고 획득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행복을 추구하고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 하였다.

송인숙(1993)은 재화에 대한 강한 욕망이며, 정신에 비해 물질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가치지향을 물질주의 성향이라고 하였으며, 박철(1993)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성향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복잡한 개념이며, 생활에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속성과 이기심, 소유욕 등 부정적인 속성 둘 다 가지고 있어 가치중립적이라고 하였다.

물질주의 성향은 소비자가 세속적 소유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성향으로 물질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소유 및 소비가 개인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되며(김형길·김정희, 1994), 행복이나 불행을 물질에 중심을 두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송순·신현실, 2002). 조충(2013)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성향을 재화에 대한 강한 욕망으로 삶의 중심을 물질에 두고 추구하는 가치라고 정의하였으며, 비물질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유지혜, 201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물질적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윤리학의 한 경향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성향을 인간의 삶에서 물질적인 것에 중요성을 두고, 이를 통해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 2) 물질주의 성향 측정

물질주의 성향과 관련된 연구는 심리학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사회과학의 마케팅, 소비자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elk(1985)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성향을 소유욕(possessiveness), 부러움( envy), 인색함(nongenerosity)으로 3가지 하위요소로 나누었다. 소유욕(possessiveness)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통제나 소유권을 유지하려는 성향과 경향이라 하였다. 부러움( envy)의 영역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욕구를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인색함(nongenerosity)은 다른 사람에게 소유물을 나누거나 소유물을 공유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Richins와 Dawson(1992)은 물질주의의 하위요소를 획득 중심성(Acquisition Centrality), 행복추구로서의 획득(Acquisition as the Pursuit of Happiness), 물질의 소유권 정의 성공(Possession-defined Success.)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획득 중심성은 소유물과 물질의 획득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하며, 행복추구로서의 획득은 물질의 획득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소유와 획득이 물질주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삶에서 만족과 웰빙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소유권 정의 성공은 축적된 소유물의 수와 질에 따라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판단하는 경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물질주의를 성공수단적 물질주의, 행복추구적 물질주의, 획득 중심적 물질주의 세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물질주의 성향이 각각 독립적으로 과시적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물질주의는 충동구매 성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획득 중심적 물질주의와 성공수단적 물질주의는 과시적 소비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행복추구 물질주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수단적 물질주의가 과시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 성공수단적 물질주의가 과시적 소비와 가장 연관이 깊다는 Wong(1997)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하였다(이진석 외 3인, 2019).

김정숙(1999)은 물질주의 성향의 하위요소를 행복추구적, 성공추구적, 소유추구적 물질주의 성향으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물질주의 성

향이 대학생들의 과소비 성향에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매개 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성공추구적 물질주의 성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소유추구적 및 행복추구적 물질주의 성향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홍은실·황덕순·한경미(2001)는 물질주의를 성공 수단적 물질주의, 획득 중심적 물질주의, 행복 추구적 물질주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여 금전사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유현정·박초롱·이종대·조보미(2004)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성향은 행복추구적인 성향과 소유 추구적인 성향이 모두 포함되지만, 대학생들은 소유 추구적인 성향보다 행복추구적인 성향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유지혜·설경옥(2016)의 연구에서는 Richins와 Dawson(1992)의 물질주의 척도(Material Values Scale)를 번안하여, 국내 대학생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를 제작하였다. 하위요인은 성공판단, 소유중심, 행복추구 3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 여부를 검증·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이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성향의 하위요소를 성공추구와 행복추구로 2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성공추구는 물질의 획득과 소유를 성공으로 보는 성향으로, 행복추구는 물질의 획득과 소유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 4.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최현자·조혜진(2011)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재무행동과, 금융교육 및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이라고 하였으며, 통장 거래 경험, 현금체크카드 사용 경험, 금융 관련 수강 과목 수의 순으로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학교에서의 금융교육과 실제 금융거래 경험이 대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최아름·구지현(2016)은 대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정도에 따라 재무관리행동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수입과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체적으로 금융이해력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재무관리행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금융이해력이 재무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이해력이 높아질수록 은퇴를 대비용 저축, 주식투자, 신용카드 대금 연체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으며, 금융교육 이수 여부와 재무상담 경험 등을 통제한 후 금융이해력은 금융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양혜경, 2018).

오수진(2012)의 연구에서는 중학생 금융교육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금융행동을 금융지식, 금융태도를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소비자의 바람직한 금융행동을 형성하는 두 핵심요인인 금융지식과 금융태도 모두 바람직한 금융행동의 예측변수로서 유의한 영향력이 연구결과로 입증되었다. 금융지식보다 금융태도가 금융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금융교육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식전달 중심의 금융교육보다 소비자들의 금융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 바람직한 금융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김아름, 양혜경(2016)은 재무관리행동에 금융이해력, 재무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며, 금융이해력이 사회초년생의 재무관리행동에 큰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금융이해력과 금융행동을 설명하는데 자기과신, 목표 및 계획 등 재무적 요인 이외의 태도 및 심리적인 변수가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목표 및 계획을 추가했을 경우, 금융이해력이나 재무관리행동을 설명하는 모형의

설명력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을 설명할 때 목표와 계획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조혜진·장연주, 2015).

국내 소비자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실증분석과 금융교육 정책과제를 연구한 김자봉·김정한(2017)은 금융소비자는 금융교육 필요성 인식, 실제 금융이해력 수준, 자기 확신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금융행동을 보이므로, 금융소비자들을 이에 기초하여 유형별로 파악하고 각 유형에 맞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 수준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돈에 대한 태도, 물질주의 성향, 금융이해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서울, 제주, 경기 지역 대상의 성인(20세~64세)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고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금융이해력(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위)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일반적 특성에 따라 돈에 대한 태도, 물질주의 성향, 금융이해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 제주, 경기 지역의 성인(20세~64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도구의 적절성과 신뢰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구에 맞게 설문 문항을 적절하게 수정과 삭제 및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IRB 승인 이후(승인번호: JJNU-IRB-2020-015-001)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전자 설문, 배포 조사, 우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전자 설문은 온라인 설문지를 만들어 네이버와 구글 링크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우편 조사는 설문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우편 조사와 배포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470부를 배부하여 395부가 회수되었으며, 그중 부실 기재된 13부를 제외한 총 38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3. 척도 구성 및 내용

####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의 인구 사회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 금융교육 참여 경험 여부, 금융교육 필요성 여부 등으로 총 13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은 선다형 및 서술형으로 구성하였다.

#### 2) 금융이해력

금융이해력의 척도는 김자봉·김정환(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자료를 기초로 설문 문항을 연구에 맞게 삭제하고 수정·보완하여 총 21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금융지식은 위험과 수익관계, 금융투자 이해, 인플레이션 의미, 분산투자의 효과, 대출·신용관련, 신용등급, 신용등급평가, 주거래 금융이용, 신용등급이해, 은행 금리, 돈의 시간적 가치, 원리금 계산, 복리개념, 예금자 보호 등의 의미를 묻는 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총 14점 만점으로 측정하였다.

금융태도는 저축과 소비, 현재와 미래, 돈의 존재 가치 등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문항으로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5점)’에서 ‘매우 그렇다(1점)’으로 구성하여, 총 15점 만점으로 측정하였다.

금융행위는 구매 전 지불 능력 점검, 각종 청구대금 기일 납부, 재무상황 예의 주시, 장기 재무목표 계획을 묻는 문항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하였다.

금융이해력은 총 21문항으로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위를 총합산한 점수는 49점 만점으로 측정하였다.

### 3) 돈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MAS척도(Yamauch&Temper, 1892)와 홍정림(2014), 김아름(2016), 유지혜(2017), 강은성(2019)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돈에 대한 태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648에서 0.748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돈에 대한 태도 신뢰도

하위 요소	문항 내용	항목수	Cronbach's alpha
미래 안전 도구	나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저축하는 편이다. 나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해 두고 있다. 나는 계획한 예산에 맞추어 돈을 쓰는 편이다.	3	.708
불안의 원천	나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면 걱정된다.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늘 걱정하는 편이다. 돈의 금액에 상관없이, 돈 쓰는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3	.648
감정 충족 도구	나는 기분전환을 위해 돈을 쓴다. 사고 싶은 것은 현금이 부족하면 신용카드나 할부로 사는 편이다. 돈 지출계획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할인하는 상품이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사는 경향이 있다.	4	.643
인색함과 불신감	구매 후 '다른 데서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비싼 물건을 살 때마다 속아서 사는 것 같다. 돈이 있건 없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라는 말을 하는 편이다. 물건을 살 때 가격을 제일 먼저 보고 결정한다.	4	.748

#### 4) 물질주의 성향

물질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는 유지혜(2016)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성향의 하위요소를 성공추구 물질주의 성향과 행복추구 물질주의 성향으로 나누었으며, 성공추구와 행복추구로 정의하였다.

성공추구는 물질의 획득과 소유를 성공으로 보는 성향을 의미하며, 행복추구는 물질의 획득과 소유하는 것 등 물질주의를 행복으로 여기는 성향을 말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물질주의 성향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분석 결과,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성공추구 물질주의 성향은 .722이고, 행복추구 물질주의 성향은 .808로 신뢰도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표 3> 물질주의 성향 신뢰도

하위 요소	문항 내용	문항수	Cronbach's alpha
성공 추구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이다. 나는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편이다.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보여준다. * 나는 타인의 물질적 소유물에 관심이 없다. *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고가의 집, 차, 옷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스럽고 부럽다. 나는 최고급 제품을 갖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편이다.	7	.722
행복 추구	나는 호화로운(럭셔리한) 삶이 좋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물건을 소유하면, 내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더 많은 것을 구매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더 갖고 싶은 것들을 모두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속상하다.	4	.808

\* 역채점 문항.

#### 4. 분석 방법

이 연구는 SPSS 12.0K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는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사용하여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였다.

셋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돈에 한 태도, 물질주의 성향, 금융이해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하위 집단 간의 차이는 Scheffé의 다중 범위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분석과 분산팽창계수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태도, 물질주의 성향, 금융이해력(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위)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 IV. 분석 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는 총 382명이며, 성별은 남성이 243명(63.6%)이고, 여성은 139명(36.4%)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다.

연령은 40세~49세 이하(137명, 35.9%)가 가장 많았으며, 30세~39세 이하(125명, 32.7%), 20세~29세 이하(95명, 24.9%), 50세~64세 이하(25명, 6.5%)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기혼(221명, 57.9%)이 미혼(161명, 42.1%)보다 많았으며,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최종학력이 대학(전문대) 졸업인 집단이 257명(6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대학원 졸업 이상이 66명(17.3%)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은 59명(15.4%)으로 가장 적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집단(137명, 35.9%)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200만 원~300만 원 미만(90명, 23.6%), 200만 원 미만(60명, 15.7%), 300만 원~400만 원 미만(55명, 14.4%), 400만 원~500만 원 미만(40명, 10.5%)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금융업·경영관리직이 146명으로(38.2%)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전문직·기능숙련공이 124명(32.5%), 자영업·판매/서비스직·일반작업직/농·어·축·수산업이 75명(19.6%), 전업주부, 무직·대학(원)생·기타 37명(9.7%) 순이었다.

금융교육 참여 경험에서는 ‘없음’(308명, 80.6%)이 ‘있음’(74명, 19.6%)보다 많았으며, 금융교육 필요 여부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339명, 88.7%)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 사람(43명, 1.3%)보다 많았다. 이를 통하여, 금융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은 없으나,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43	63.6
	여성	139	36.4
연령	20세~29세 이하	95	24.9
	30세~39세 이하	125	32.7
	40세~49세 이하	137	35.9
	50세~64세 이하	25	6.5
결혼 여부	기혼	221	57.9
	미혼	161	42.1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59	15.4
	대학(전문대) 졸업	257	67.3
	대학원 졸업 이상	66	17.3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 원 미만	60	15.7
	200~300만 원 미만	90	23.6
	300~400만 원 미만	55	14.4
	400~500만 원 미만	40	10.5
	500만 원 이상	137	35.9
직업	사무직·금융업·경영관리직	146	38.2
	자영업·판매/서비스직· 일반 작업직/농·어·축·수산업	75	19.6
	전문직·기능숙련공	124	32.5
	전업주부·무직·대학(원)생·기타	37	9.7
금융교육 참여 경험	있음	74	19.4
	없음	308	80.6
금융교육 필요 여부	필요함	339	88.7
	필요하지 않음	43	11.3
계		382	100.0

## 2. 금융이해력에 대한 분석

### 1) 금융이해력 수준

금융이해력은 금융에 대한 일반적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 수준을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위 3가지 하위요소를 구성하여 산출하였다.

금융이해력 수준 측정 결과는 다음 <표 5>과 같다.

각 부분별 평균 점수는 금융지식은 14점 만점에서 8.34점, 금융태도는 15점 만점에서 7.98점, 금융행위는 20점 만점에서 14.93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금융지식은 59.59점, 금융태도는 53.19점, 금융행위는 74.66점이며, 금융이해력 점수는 63.78점으로 나타났다.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와 비교해보면, 금융지식의 점수는 2018년 기준 금융 지식의 평균 점수보다(65.7점) 낮게 나타났으며, 금융이해력 수준(2020기준, 63.78점)이 성인(만 18세~1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2018년 기준, 82.2점)과 OECD 평균(2015년 기준, 64.9점)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성인의 금융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금융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 금융이해력 수준

하위요소	M <sup>1)</sup> (SD)	M <sup>2)</sup> (SD)
금융지식	8.34(3.13)	59.59(22.39)
금융태도	7.98(2.40)	53.19(15.97)
금융행위	14.93(2.54)	74.66(12.71)
금융이해력 전체	31.25(4.29)	63.78(8.76)

1) 금융지식 : 14점 만점, 금융태도 : 15점 만점, 금융행위 : 20점 만점, 금융이해력: 49점 만점.

2)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위 100점 환산.

## (1) 금융지식

금융지식은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금융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의미하며, 금융지식 측정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각 문항별 정답률을 보면, ⑭ ‘다음 중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예금자 보호) 문항이 13.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⑩ ‘예·적금 약정 금리는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 후 금리는 약정금리보다 낮다.’(은행금리)45%, ⑤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대출, 신용 관련) 50.3%, ④ ‘주식투자 시 다양한 여러 주식을 구매한다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분산투자의 효과) 51.3%, ⑫ ‘연 2%의 이자를 보장하는 1년 만기 비과세 정기예금에 100만 원을 입금했을 경우, 1년 후 계좌에는 얼마의 금액이 있겠습니까?’(원리금 계산) 58.1%, ⑬ ‘비과세 정기 예금계좌에 100만 원을 연 2%의 복리 이자로 5년 동안 입금해 둔다면, 5년 후 계좌에는 얼마의 금액이 있겠습니까?’(복리 개념) 58.6%, ③ ‘높은 인플레이션은 생활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인플레이션 의미) 58.6%, ⑦ ‘타인에 대한 보증은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신용등급 평가)는 62.3%, ⑪ ‘연 2%의 이자를 보장하는 1년 만기 비과세 정기예금에 100만 원을 입금했을 경우, 1년 후 계좌에는 얼마의 금액이 있겠습니까?’(돈의 시간적 가치) 66.5%, ② ‘금융투자 상품은 원금이 보장된다.’(금융투자 이해) 65.4%, ⑨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을 쓰지 않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하다.’(신용등급 이해)는 66.0%, ⑧ ‘여러 금융회사보다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주거래 금융이용) 76.2%, ⑥ ‘신용등급 소액 연체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신용등급) 78.8%, ① ‘높은 수익 투자는 높은 위험과 같다.’(위험과 수익 간의 관계)의 정답률은 8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예금자 보호, 은행금리, 대출, 신용 관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금융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금자 보호인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정확히 식별하는데 가장 점수가 낮게 나와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한지수(201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대상으로 실용적인 금융 지식 정보제공 또는 실용금융 교육을 실시하여 금융지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6> 금융지식 측정

N(%)=382(100.0)

번호	설문 항목	설문내용	정답	오답
1	위험과 수익 간의 관계	높은 수익 투자는 높은 위험과 같다.	318 (83.2)	64 (16.8)
2	금융투자 이해	금융투자 상품(펀드, ELS 등)은 원금이 보장된다.	250 (65.4)	132 (34.6)
3	인플레이션 의미	높은 인플레이션은 생활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4 (58.6)	158 (41.4)
4	분산투자 효과	주식투자 시 다양한 여러 주식을 구매한다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196 (51.3)	186 (48.7)
5	대출, 신용 관련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192 (50.3)	190 (49.7)
6	신용등급	소액연체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01 (78.8)	81 (21.2)
7	신용등급 평가	타인에 대한 보증은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238 (62.3)	144 (37.7)
8	주거래 금융 이용	여러 금융회사보다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91 (76.2)	91 (23.8)
9	신용등급 이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을 쓰지 않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하다.	252 (66.0)	130 (34.0)
10	은행 금리	예·적금 약정 금리는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 후 금리는 약정금리보다 낮다.	172 (45.0)	210 (55.0)
11	돈의 시간적 가치	물가상승률이 3%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1년 후에 받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지금 돈을 받아서 구매할 경우와 비교하여 어떻겠습니까?	254 (66.5)	128 (33.5)
12	원리금 계산	연 2%의 이자를 보장하는 1년 만기 비과세 정기예금에 100만 원을 입금했을 경우, 1년 후 계좌에는 얼마의 금액이 있겠습니까?	222 (58.1)	160 (41.9)
13	복리 개념	비과세 정기 예금계좌에 100만 원을 연 2%의 복리 이자로 5년 동안 입금해 둔다면, 5년 후 계좌에는 얼마의 금액이 있겠습니까?	224 (58.6)	158 (41.4)
14	예금자 보호	다음 중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	53 (13.9)	329 (86.1)

## (2) 금융태도

금융태도는 소비와 저축, 현재와 미래, 돈의 존재 가치 등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며, 금융태도 수준은 다음 <표 7>과 같다.

첫째,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 현재 지금 소비하는 것이 더 만족스럽다.’는 문항에서는 ‘보통이다’(34.3%)가 가장 많았으며, ‘그렇지 않다’(34%), ‘그렇다’(18.1%), ‘전혀 그렇지 않다’(9.9%), ‘매우 그렇다’(3.7%)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나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이 오늘만 산다.’ 문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36.9%)가 가장 많았으며, ‘그렇지 않다’(35.6%), ‘그렇다’(8.6%), ‘보통이다’(15.4%), ‘매우 그렇다’(3.4%)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다.’라는 돈의 존재 가치를 묻는 문항에서는 ‘보통이다’(36.4%)가 가장 많았으며, ‘그렇지 않다’(18.8%), ‘그렇다’(34.6%), ‘매우 그렇다’(6.3%), ‘전혀 그렇지 않다’(3.9%)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태도 문항별 평균 점수는 2.06점~3.20점으로 나타났으며,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한다(3.20점).’는 문항이 가장 높았으며, ‘저축보다는 소비를 선호한다(2.71점).’ 다음으로 ‘미래보다는 현재를 소비하는 선호한다(2.06점).’가 가장 낮았다.

이 결과로 금융태도에서 미래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만, 돈의 존재 가치를 소비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돈을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초년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김아름(2016)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표 7> 금융태도 수준

N(%)=382(100.0)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 현재 지금 소비하는 것이 더 만족스럽다.	38 (9.9)	130 (34)	131 (34.3)	69 (18.1)	14 (3.7)	2.71 (0.99)
나는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오늘만 산다.	141 (36.9)	136 (35.6)	59 (15.4)	33 (8.6)	13 (3.4)	2.06 (1.08)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다.	15 (3.9)	72 (18.8)	139 (36.4)	132 (34.6)	24 (6.3)	3.20 (0.95)

### (3) 금융행위

금융행위란 재무 계획과 관리 및 금융상품 선택 등 금융 소비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융 행위 수준 결과는 <표 8>와 같다.

첫째, 구매 전 지불 능력 점검을 묻는 문항은 ‘그렇다’(52.6%)가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24.6%), ‘매우 그렇다’(12.6%), ‘그렇지 않다’(5.8%), ‘전혀 그렇지 않다’(2.4%)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종 청구대금 기한 준수를 묻는 문항은 ‘그렇다’(43.5%)가 많았으며, ‘보통이다’(16.0%), ‘매우 그렇다’(38.2%), ‘그렇지 않다’(1.8%) ‘전혀 그렇지 않다’(0.5%)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무 상황 예의 주시 여부를 묻는 문항은 ‘그렇다’(49.2%)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25.4%), ‘매우 그렇다’(18.8%), ‘그렇지 않다’(5.8%), ‘전혀 그렇지 않다’(0.8%)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기 재무 목표 계획과 실행 여부를 묻는 문항은 ‘보통이다’(39%)가 가장 많았고, ‘그렇다’(34%), ‘그렇지 않다’(14.7%), ‘매우 그렇다’(9.2%) ‘전혀 그렇지 않다’(3.1%)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행위 문항별 평균은 3.31~4.17로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종 청구대금 기일 납부한다(4.17).’가 가장 높았고, ‘평소 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3.80).’에 비해,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것을 살 여유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한다(3.65).’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예의 주시한다(3.31).’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장·단기 재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평가할 수 있는 경험적·실천적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8> 금융행위 수준

N(%)=382(100.0)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것을 살 여유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한다.	9 (2.4)	30 (7.9)	94 (24.6)	201 (52.6)	48 (12.6)	3.65 (0.88)
각종 청구대금(공과금, 관리비, 고지서 등)을 기일 내 납부한다.	2 (0.5)	7 (1.8)	61 (16)	166 (43.5)	146 (38.2)	4.17 (0.80)
평소 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	3 (0.8)	22 (5.8)	97 (25.4)	188 (49.2)	72 (18.8)	3.80 (0.84)
장기 재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 (3.1)	56 (14.7)	149 (39)	130 (34)	35 (9.2)	3.31 (0.94)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돈에 대한 태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돈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하위집단 간의 차이는 Scheffé의 다중 범위 검정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미래 안전 도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돈을 미래 안전 도구로 인식하는 태도에 금융교육 필요 여부, 교육 수준, 금융교육 참여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 결혼 여부, 연령,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 수준을 Scheffé의 다중 범위 검정을 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과 대학(전문대) 졸업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대학(전문대) 졸업 이상인 집단이 미래 안전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의 원천에는 모든 독립변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결혼 여부, 연령,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 등은 돈에 대한 태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충족 도구는 성별, 금융교육 참여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결혼 여부, 연령,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 금융교육 필요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인색함과 불신감은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별, 결혼 여부, 연령,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 금융교육 참여 경험, 금융교육 필요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cheffé의 다중 범위 검정 결과, 교육수준에 따라 대학원 졸업 집단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및 대학(전문대) 졸업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보다 돈에 대해 인색하고 불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돈에 대한 태도는 교육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미래 안전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저축하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하여 인색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9>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돈에 대한 태도의 차이

변수	구분	돈에 대한 태도							
		미래 안전 도구		불안의 원천		감정 충족 도구		인색함과 불신감	
		M	S	M	S	M	S	M	S
성별	남성	3.30		3.34		2.76		2.95	
	여성	3.37		3.40		3.01		2.96	
	<i>t</i>	-0.94		-0.71		-3.06**		-0.16	
결혼 여부	기혼	3.35		3.38		2.85		2.90	
	미혼	3.29		3.34		2.84		3.02	
	<i>t</i>	0.76		0.41		0.13		-1.44	
연령	20세~29세 이하	3.17		3.33		2.86		3.05	
	30세~39세 이하	3.37		3.38		2.87		2.88	
	40세~49세 이하	3.39		3.38		2.86		2.93	
	50세~64세 이하	3.36		3.32		2.67		3.01	
	<i>F</i>	1.75		0.14		0.48		0.82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9	a	3.45		2.95		3.13	b
	대학(전문대) 졸업	3.39	b	3.38		2.82		3.00	b
	대학원 졸업 이상	3.30	ab	3.20		2.88		2.59	a
	<i>F</i>	3.72*		2.03		0.79		8.64***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 원 미만	3.22		3.43		2.86		3.20	
	200~300만 원 미만	3.31		3.44		2.86		2.98	
	300~400만 원 미만	3.28		3.41		2.8		2.94	
	400~500만 원 미만	3.15		3.25		3.09		2.93	
	500만 원 이상	3.45		3.29		2.79		2.84	
<i>F</i>	1.86		0.97		1.20		2.06		
직업	사무직·금융업·경영관리직	3.42		3.31		2.92		3.01	
	자영업·판매/서비스직·일반작업직/농·어·축·수산업	3.25		3.4		2.78		2.87	
	전문직·기능숙련공	3.33		3.34		2.85		2.97	
	전업주부·무직·대학(원)생·기타	3.08		3.6		2.71		2.82	
	<i>F</i>	2.34		1.66		0.94		0.82	
금융교육 참여 경험	있음	3.39		3.37		2.65		2.94	
	없음	3.31		3.36		2.9		2.95	
	<i>t</i>	0.83*		0.09		-2.11**		-0.11	
금융교육 필요 여부	필요함.	3.39		3.38		2.82		2.93	
	필요하지 않음	2.84		3.24		3.06		3.09	
	<i>t</i>	4.57***		1.30		-1.85		-1.21	

1) \* $p < .05$ , \*\* $p < .01$ , \*\*\* $p < .001$

2) M은 평균이며, S는 Scheffé의 다중범위검증임. a<b.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질주의 성향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물질주의 성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하위집단 간의 차이는 Scheffé의 다중 범위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10>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물질주의 성향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성공추구성향 물질주의에는 성별, 결혼 여부, 직업, 금융교육 참여 경험, 금융교육 필요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Scheffé의 다중 범위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공추구 물질주의 성향은 여성보다 남성이, 미혼보다 기혼이, 직업에서는 사무직·금융업·경영관리직, 금융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금융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집단이,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집단보다 금융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이 성공추구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추구 물질주의 성향에 유의한 차이를 미치는 일반적 특성에는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금융교육 필요 여부이었으며, 성별, 결혼 여부, 연령, 직업, 금융교육 참여 경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위집단 간의 차이를 Scheffé의 다중 범위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에 따라 대학(전문대) 졸업 및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이 행복추구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400만 원~500만 원 이상인 집단 및 500만 원 이상인 집단보다, 200만 원~3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물질의 획득과 소유를 행복으로 여기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물질주의 성향의 차이

변수	구분	물질주의 성향			
		성공추구		행복추구	
		M	S	M	S
성별	남성	2.80		3.10	
	여성	2.60		3.05	
	<i>t</i>	2.88**		0.53	
결혼 여부	기혼	2.79		3.04	
	미혼	2.64		3.13	
	<i>t</i>	2.14*		-1.03	
연령	20세~29세 이하	2.59		3.16	
	30세~39세 이하	2.72		3.10	
	40세~49세 이하	2.83		2.99	
	50세~64세 이하	2.73		3.20	
	<i>F</i>	2.60		1.02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1		3.41	b
	대학(전문대) 졸업	2.73		3.07	a
	대학원 졸업 이상	2.73		2.84	a
	<i>F</i>	0.03		7.37**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 원 미만	2.64		3.12	ab
	200~300만 원 미만	2.73		3.30	b
	300~400만 원 미만	2.77		3.14	ab
	400~500만 원 미만	2.65		2.95	a
	500만 원 이상	2.77		2.93	a
	<i>F</i>	0.59		3.01*	
직업	사무직·금융업·경영관리직	146		146	
	자영업·판매/서비스직· 일반 작업직/농·어·축·수산업	75		75	
	전문직·기능숙련공	124		124	
	전업주부·무직· 대학(원)생·기타	37		37	
	<i>F</i>	2.70*		0.14	
금융교육 참여 경험	있음	2.54		2.91	
	없음	2.77		3.12	
	<i>t</i>	-2.90**		-1.74	
금융교육 필요 여부	필요함	2.70		3.05	
	필요하지 않음	2.95		3.31	
	<i>t</i>	-2.51*		-1.94*	

1) \* $p < .05$ , \*\* $p < .01$ , \*\*\* $p < .001$

2) M : 평균, S : Scheffe의 다중범위검증, a<b.

##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융이해력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금융이해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 검정(t-test)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집단 간의 차이는 Scheffé의 다중 범위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1>와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금융이해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융지식에는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 금융교육 참여 경험, 금융교육 필요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결혼 여부,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 집단 간 차이를 Scheffé의 다중 범위 검정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보다 대학(전문대 졸업) 졸업 및 대학원 졸업 이상인 집단이, 월평균 가계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500만 원 미만인 집단보다, 직업은 전문직·기능숙련공이 그외 집단보다 금융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금융지식이 높아진다는 김자봉·김정환(2017)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둘째, 금융태도에는 연령,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 금융교육 필요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 결혼 여부, 직업, 금융교육 참여 경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cheffé의 다중 범위 검정 결과, 연령에 따라 20세~29세 이하 집단이 다른 연령 집단보다 금융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으며,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집단보다 금융태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만 원 미만인 집단과 200~3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500만 원 이상인 집단보다 금융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금융행위에는 결혼 여부, 금융교육 필요 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었으며,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 금융교육, 참여 경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금융태도는 연령에 따라 20세~29세 이하 집단이, 교육수준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이,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서는 2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미래 생활을 위한 저축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융이해력의 차이

변수	구분	금융이해력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위	
		M	S	M	S	M	S
성별	남성	8.55		2.68		3.68	
	여성	7.99		2.63		3.55	
	<i>t</i>	1.69		0.56		1.70	
결혼 여부	기혼	8.62		3.92		3.73	
	미혼	7.97		3.88		3.49	
	<i>t</i>	2.00		-4.22		3.12**	
연령	20세~29세 이하	7.84		2.97	b	3.53	
	30세~39세 이하	8.48		2.68	ab	3.57	
	40세~49세 이하	8.72		2.45	a	3.72	
	50세~64세 이하	7.48		2.56	a	3.84	
	<i>F</i>	2.21		8.68***		2.3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7.03	a	3.03	b	3.49	
	대학(전문대) 졸업	8.44	b	2.64	a	3.65	
	대학원 졸업 이상	9.15	b	2.40	a	3.70	
	<i>F</i>	7.72**		10.44***		1.39	
월 평균 가계 소득	200만 원 미만	7.63	a	2.91	b	3.53	
	200~300만 원 미만	7.64	a	2.86	b	3.48	
	300~400만 원 미만	8.55	ab	2.70	ab	3.73	
	400~500만 원 미만	7.33	a	2.63	ab	3.60	
	500만 원 이상	9.33	b	2.41	a	3.74	
	<i>F</i>	6.77***		6.61***		2.36	
직업	사무직·금융업·경영관리직	7.89	a	2.81		3.65	
	자영업·판매/서비스직· 일반 작업직/농·어·축·수산업	7.20	a	2.59		3.63	
	전문직·기능숙련공	9.67	b	2.49		3.65	
	전업주부·무직· 대학(원)생·기타	8.00	a	2.76		3.49	
	<i>F</i>	13.01***		4.08**		0.53	
금융교육 참여 경험	있음	9.38		2.59		3.59	
	없음	8.09		2.68		3.64	
	<i>t</i>	3.20***		-0.78		-0.47	
금융교육 필요 여부	필요함	8.73		2.58		3.68	
	필요하지 않음	5.26		3.27		3.23	
	<i>t</i>	7.31***		-4.72***		2.51*	

1) \* $p < .05$ , \*\* $p < .01$ , \*\*\* $p < .001$

2) M은 평균이며, S는 Scheffé의 다중범위검증임.  $a < b$ .

## 6.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 1) 독립 변수의 상관관계

독립 변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돈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소인 미래 안전 도구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불안의 원천, 감정 충족 도구, 인식함과 불신감, 금융행위, 금융태도였으며, 성공추구 물질주의 성향, 행복추구 물질주의 성향, 금융지식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불안의 원천은 인식함과 불신감, 성공추구 물질주의 성향, 행복추구 물질주의 성향, 금융행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감정 충족 도구, 금융지식, 금융태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감정 충족 도구는 인식함과 불신감, 성공추구 물질주의 성향, 행복추구 물질주의 성향,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금융이해력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인식함과 불신감은 성공추구 물질주의 성향, 행복추구 물질주의 성향, 금융태도, 금융이해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금융지식, 금융행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물질주의 성향의 하위요소인 행복추구 물질주의 성향은 금융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이해력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공추구 물질주의 성향은 행복추구 물질주의 성향 성향과 금융태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이해력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금융이해력의 하위요소인 금융지식은 금융태도, 금융행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금융행위는 금융태도, 금융이해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금융태도는 금융이해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선행연구 중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와 돈에 대한 태도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상관관계 분석 결과 물질주의가 돈에 대한 태도 척도 간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 물질주의가 돈에 대한 태도와 어느 정도 수렴하면서도 변별되는 새로운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는 유지혜(2016)의 연구와 일치한다.

<표 12> 독립 변수의 상관관계

	미래 안전 도구	불안 의 원천	감정 충 족 도구	인색함과 불신감	행복 추구	성공 추구	금융 지식	금융 행위	금융 태도	금융 이해력
1	1									
2	.103*	1								
3	-.225***	0.03	1							
4	-.109*	.379***	.258***	1						
5	-0.08	.349***	.401***	.308***	1					
6	-0.06	.277***	.355***	.128***	.692***	1				
7	0.07	0.07	-.148***	0.04	-0.03	0.07	1			
8	.531***	.232***	-.324***	-0.02	-0.07	-0.09	.287***	1		
9	-.412***	-0.10	.362***	.258***	.268***	.181***	-.218***	-.403***	1	
10	.132**	.135**	-0.10	.158***	0.09	0.10	.779***	.577***	.161***	1

\* $p < .05$ , \*\* $p < .01$ , \*\*\* $p < .001$

## 2)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에 의하면, 독립변수들의 상관계수가 모두 0.6 미만이고, 분산팽창계수는 1.06~2.44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중 회귀 분석 결과,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의 회귀모형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금융지식은 약 22.5%, 금융행위는 약 37.2%, 금융태도는 약 37.5%이었다. 다중 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 (1) 금융지식

금융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금융교육 참여 여부, 금융교육 필요 여부, 감정 충족 도구, 인식함과 불신감, 성공추구 물질주의 성향 물질주의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결혼 여부, 연령, 미래 안전 도구, 불안의 원천, 행복추구 물질주의 성향 물질주의 성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금융 지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융교육 필요 여부였고, 그다음으로는 성공추구 물질주의 성향, 금융교육 참여 경험, 감정 충족 도구,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순이었다. 월평균 가계소득, 금융교육 참여 경험, 금융교육 필요 여부, 인식함과 불신감, 성공추구 물질주의 성향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교육수준과 감정 충족 도구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이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계소득은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500만 원 미만인 집단보다, 금융교육 참여 여부는 금융교육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참여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금융지식의 점수가 높았다. 금융교육 필요하다고 한 집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에 대하여 인식함과 불신감을 가지고 있을수록, 감정 충족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낮을수록, 성공추구 물질주의 성향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금융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금융태도

금융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금융교육 필요 여부, 미래 안전 도구, 불안의 원천, 감정 충족 도구, 인색함과 불신감 등이 있었으며,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금융교육 참여 경험, 금융교육 필요 여부, 행복추구 물질주의 성향, 성공추구 물질주의 성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금융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래 안전 도구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불안의 원천, 인색함과 불신감, 연령, 감정 충족 도구이었다.

연령, 금융교육 필요 여부, 미래 안전 도구, 불안의 원천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 충족 도구, 인색함과 불신감은 정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감정 충족 도구, 인색함과 불신감, 미래 안전 도구, 불안의 원천으로 인식할수록 금융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교육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집단이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금융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금융행위

금융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융교육 필요 여부, 미래 안전 도구, 불안의 원천, 감정 충족 도구 등이었으며, 성별, 결혼 여부, 연령,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금융교육 참여 경험, 인색함과 불신감, 행복추구와 성공추구 물질주의 성향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금융 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래 안전 도구였으며, 그다음으로는 감정 충족 도구, 불안의 원천, 금융교육 필요 여부 순이었다.

금융교육 필요여부, 돈을 미래 안전 도구나 불안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감정 충족 도구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돈을 미래 안전 도구로, 불안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감정충족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낮을수록 금융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돈을 감정 충족 도구로 여기는 태도를 지닐수록 바람직한 금전사용 행동 경향이 낮은 결과가 나온 홍은실·황덕순·한경미(2001)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표 13>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위		
	B	$\beta$	t	B	$\beta$	t	B	$\beta$	t
성별 (남)	-0.01	0.00	-0.03	0.40	0.08	1.78	0.10	0.02	0.44
결혼 여부 (기혼)	0.11	0.02	0.27	-0.19	-0.04	-0.72	0.11	0.02	0.37
연령	-0.02	-0.05	-0.81	-0.05	<b>-0.17***</b>	-3.02	-0.01	-0.03	-0.61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00	<b>-0.12*</b>	-2.37	0.48	0.07	1.68	-0.12	-0.02	-0.39
월평균 가계소득 (500만 원 이상)	1.26	<b>0.19***</b>	3.44	-0.37	-0.07	-1.47	0.41	0.08	1.53
금융교육 참여 경험 (있음)	1.45	<b>0.18***</b>	3.93	0.07	0.01	0.28	0.27	0.04	0.99
금융교육 필요 여부 (필요함)	3.31	<b>0.33***</b>	7.02	-1.03	<b>-0.14***</b>	-3.18	1.12	<b>0.14***</b>	3.25
미래 안전 도구	-0.30	-0.07	-1.50	-0.78	<b>-0.25***</b>	-5.70	1.42	<b>0.42***</b>	9.70
불안의 원천	-0.02	-0.01	-0.10	-0.63	<b>-0.20***</b>	-4.13	0.61	<b>0.18***</b>	3.79
감정 충족 도구	-0.72	<b>-0.18***</b>	-3.33	0.55	<b>0.18***</b>	3.73	-0.69	<b>-0.21***</b>	-4.38
인색함과 불신감	0.45	<b>0.12*</b>	2.23	0.56	<b>0.19***</b>	4.02	0.07	0.02	0.47
행복추구	-0.18	-0.05	-0.69	0.27	0.09	1.49	0.16	0.05	0.85
성공추구	1.04	<b>0.21***</b>	3.09	0.24	0.06	1.05	-0.25	-0.06	-1.01
상수	4.95***			10.50***			9.17***		
adj R <sup>2</sup>	0.225			0.375			0.372		
F	9.52***			18.61***			18.33***		

1) \* $p < .05$ , \*\* $p < .01$ , \*\*\* $p < .001$

2)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금융교육 참여 여부, 금융교육 필요 여부는 더미 변수로 ( )집단이 1, 기타집단은 0임.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소비가 활발한 20세~64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라 돈에 대한 태도, 물질주의 성향, 금융이해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며,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인의 돈에 대한 태도, 물질주의 성향, 금융이해력을 파악하고,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이해력 수준 측정 결과 금융지식은 59.59점으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측정조사」 결과 점수인 65.7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금융태도는 53.19점, 금융행위는 74.66점, 전체 금융이해력 점수는 63.78점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금융지식 점수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지식 문항 중 분산투자 및 대출과 신용, 예금자 보호 상품 관련해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재무계획을 하는 부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돈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돈을 미래 안전 도구로 인식하는 태도에 금융교육 필요 여부, 교육 수준, 금융교육 참여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을 Scheffé의 다중 범위 검정을 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과 대학(전문대) 졸업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보다 대학(전문대) 졸업 이상인 집단이 돈을 미래 안전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의 원천에는 모든 독립변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감정 충족 도구에는 성별, 금융교육 참여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식함과 불신감에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Scheffé의 다중 범위 검정 결과, 교육수준에서 대학원 졸업 집단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및 대학(전문대) 졸업 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보다 돈에 대해 인식하고 불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물질주의 성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공추구 물질주의 성향에는 성별, 결혼 여부, 직업, 금융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행복추구 물질주의 성향에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금융교육 필요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교육 수준에 따라 대학(전문대) 졸업 및 대학원 졸업 이상인 집단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이,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 400만 원~500만 원 이상인 집단 및 500만 원 이상인 집단보다 200만 원~300만 원 미만 집단이 행복추구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금융이해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금융지식에는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 금융교육 참여 경험, 금융교육 필요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금융태도에는 연령,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 금융교육 필요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금융행위는 결혼 여부, 금융교육 필요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한 결과, 금융지식은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성공 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금융지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금융태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돈을 감정 충족 도구로 생각할수록, 인식함과 불신감이 높을수록, 미래 안전 도구와 불안의 원천은 낮을수록 금융태도의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금융행위는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금융행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돈에 대해 미래의 안전도구나 불안의 원천으로, 감정 충족 도구로 생각할수록 금융행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한 결과, 금융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금융교육 참여 여부, 금융교육 필요 여부, 감정 충족 도구, 인식함과 불신감, 성공추구 물질주의 성향 물질주의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지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융교육 필요 여



부였고, 그다음으로는 성공추구 물질주의 성향, 금융교육 참여 경험, 감정 충족 도구,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순이었다. 금융지식에서는 교육수준이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계소득은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500만 원 미만인 집단보다, 금융교육 참여 여부는 금융교육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참여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금융지식의 점수가 높았다. 금융교육 필요하다고 한 집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금융교육 필요 여부, 미래 안전 도구, 불안의 원천, 감정 충족 도구, 인식합과 불신감 등이 있었으며,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금융교육 참여 경험, 금융교육 필요 여부, 행복추구 물질주의 성향, 성공추구 물질주의 성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금융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래 안전 도구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불안의 원천, 인식합과 불신감, 연령, 감정 충족 도구이었다.

금융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융교육 필요 여부, 미래 안전 도구, 불안의 원천, 감정 충족 도구 등이었으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래 안전 도구였으며, 그다음으로는 감정 충족 도구, 불안의 원천, 금융교육 필요 여부 순이었다.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돈을 미래 안전 도구로, 불안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감정충족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낮을수록 금융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한 제언 및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연구 수집 대상이 382명으로 성인 전체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의 범위와 조사대상자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다중 회귀 분석까지 하였기 때문에 변수 간의 인과성을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과성의 연구를 통하여 명확하고 다양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교육 내용으로는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경제교육, 자산관리 운영 방법, 노후대비 금융교육 등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대로 구성된 실용적인 금융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금융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소비가 활발한 20세~64세의 성인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고,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 금융이해력이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성인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인들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강은성(2019). 청소년의 금융이해력과 돈에 대한 태도가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자(2003). 대학생들의 돈 태도와 개인재무관리 실태. 소비문화연구. 6(3), 2-50.
- 김경미(2014). 대학생의 물질주의와 주관적 안녕감 및 대학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21(10), 295-314.
- 김미리(2007).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 이해력 및 금융소비자교육 요구도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리, 김시월(2011).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 및 금융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ing Review. 4(2), 1-28.
- 김미선(1996). 물질주의 성향과 충동구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희(2016). 직장인 물질주의와 직무태도의 관계에서 보상만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아름(2016). 사회초년생의 금융이해력과 재무스트레스가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균(2011). 중학생들의 금융이해력과 결정요인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자봉, 김정환(2017). 국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실증분석과 금융교육 정책과제. 금융리포트. 2017(5), 1-131.
- 김정숙(1999). 대학생의 과시소비 성향과 영향요인. 소비문화연구, 2(2), 43-65.
- 김정훈, 정혜정(1996).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시험적 연구: MBBS 적용 및 비교문화적 관점. 원대논문집, 32, 521-535.
- 김정훈, 동환숙(1999). 남녀 대학생들의 돈에 대한 태도의 금전관리 만족도와 생활양식 만족도에 대한 영향. 생활자원개발연구, 1, 20-28.
- 김정훈, 동환숙(2002). IMF 경제 위기 전후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 차

- 이. 한국생활과학회지, 1(3), 237-247.
- 김아름, 양혜경(2016). 사회초년생의 금융이해력과 재무스트레스가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9(4), 79-105.
- 김정훈, Masuo. D., Malrouto. L., Hanashiro. R.(2002). 여대생들의 돈에 대한 태도와 경험: 한국, 일본 및 한국계, 일본계 미국 여대생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2), 169-175.
- 김정훈, 이은희(2002).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유형에 따른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소비가치, 물질주의 태도, 구매충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21-128.
- 김정환(2016). 금융이해력과 금융교육에 대한 해외연구 및 사례.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 김정훈(2002). 여대생들의 돈에 대한 태도와 경험. 한국생활과학회지, 11(22), 169-175
- 김정훈, 이은희(2002).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유형에 따른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소비가치, 물질주의 태도, 구매충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21-128.
- 김정훈(2011).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돈 태도 유형이 기부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0(4), 819-829.
- 김자봉, 김정환(2017). 국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실증분석과 금융교육 정책과제. 금융리포트, 2017(5), 1-131.
- 김형길, 김정희(1994). 소비자의 물질주의 성향과 측정에 관한 연구, 논문집 39(1). :375-395
- 나혜림(2016). 금융소비자의 은퇴준비과정 단계별 심리적 편향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세영(2014). 금융 경험과 금융 이해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명숙(2012). 청소년 소비자의 돈에 대한 태도와 과소비성향이 비윤리적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4), 509-522.
- 박은아(1994). 자기존중감, 사회적 인정욕구, 돈에 대한 태도에 따른 현시적 소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숙(2001). 대학생 소비자의 돈에 대한 태도 유형별 의복구매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정숙, 차경옥(2003). 대학생 소비자의 돈에 대한 태도 유형별 의복구매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1(6), 13-28.
- 백은영(1997). 돈에 대한 태도유형별 가게의 저축 및 지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은영, 정순희(1998). 도시가계의 돈 태도 유형과 지출 행동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3), 47-60.
- 송순, 신현실(2002). 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3), 223-235.
- 양혜경. 금융이해력과 재무행동(2018). Financial Planning Review 11(3), 29-55.
- 이재화(2017). 핀테크 확산이 금융부분에 미칠 영향과 감사 시사점. 감사원 감사연구원.
- 오수진(2012). 소비자 금융교육효과 측정 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중학생의 금융지식과 금융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8(3), 113-130.
- 엄소윤(2016). 대학생의 금융거래경험과 금융관련 교육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현정, 박초롱, 이종대, 조보미(2004).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 및 물질주의 성향. 생활과학연구논총, 8(2), 169-186.
- 유지혜, 설경옥(2018).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3), 385-410.
- 유지혜(2017)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석현(2018). 2018 연차보고서. 서울: 금융감독원.
- 이경희(2016). 금융이해력이 재무설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이운호(2016). 우리나라 성인의 연령대별 금융이해력. 경제교육연구, 25(3), 61-85.
- 이의선(2012). 효과적인 금융교육 설계를 위한 방향성 연구 : 비합리적 금융행동 및 태도 변화 방안의 모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상택(2007). 청소년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석, 조현영, 전승우(2019). 다양한 얼굴의 물질주의. 마케팅연구, 34(2), 45-66.
- 정순희, 허경옥, 백은영(1997). 돈에 대한 태도유형별 가계의 저축행동. 소비자학연구, 8(2), 43-59.
- 정혜정, 김정훈(1996).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시험적 연구: MBBS 적용 및 비교문화적 관점, 32(2), 521-535.
- 조혜진, 장연주(2015). 대학생의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 영향요인 비교 연구: 목표설정(goal setting), 계획(planing), 자기과신(overconfidence)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8(3), 19-22.
- 최병섭, 이지연(2019). 대학생의 물질주의,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 우울의 구조적 관계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8(3), 1039-1063.
- 최병일(2020). 국내 청소년의 화폐 태도와 금융 경제 지식에 관한 연구. 경제교육연구, 27(1), 101-120.
- 최아름, 구지현(2016). 대학생의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18(5), 2637-2650.
- 최재경(2016).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FP학회지, 9(2), 87-112.
- 최재경(2017). 돈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투자행동에의 적용.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현자, 조혜진(2011). 금융교육과 금융거래경험이 대학생의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2(4), 55-75.
- 한진수(2017). 수도권 거주 성인의 금융 이해력. 기전문화연구, 38(2), 1-22.
- 홍은실, 복미정(2019). 물질주의성향과 자아존중감 유형에 따른 윤리적 소비의 특성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3-95.
- 홍은실, 황덕순(2004). 대학생 소비자의 물질주의 가치와 돈에 대한 선-악 태도, 재정스트레스. 生活科學研究, 14, 73-84.
- 홍은실, 황덕순(2001). 여대생 소비자의 화폐에 대한 태도유형별 가치특성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4(2), 21-38.
- 홍은실, 황덕순, 한경미(2001). 여자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성향과 화폐에 대한 태도 및 금전사용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43-158.

- 홍은실(2005). 중, 고,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03-121.
- 홍은실(2014). 성인여성소비자의 자아존중감과 내적통제중심성, 물질주의 가치에 따른 소비특성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0(3), 33-57.
- 홍정림(2014). 돈에 대한 태도가 저축과 소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중귀(2006).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국내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국외 문헌]

- Belk, R.W.(1985). Materialism: Trait aspects of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3), 265-280.
- Furnham, A. F. (1984). Many sides of the coin: The psychology of money usag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5), 501 - 509.
- Furnham, A. and Argyle, M. (1998). *The Psychology of Money*. Taylor & Frances/Routledge.
- Hanley, A.&Wilhelm, M.S.(1992). Compulsive buying: An Exploration into self-esteem and money attitud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3, 5-18.
- Richins, M. L.&Dawson, S. (1990). Measuring material values-A preliminary report of scale development. NA-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ume 17. 169-175.
- Richins, M. L.&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303-316.
- Richins(1994), Special Possessions and the Expression of Material Valu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1, December, 522-533.
- Tang, T.(1992). The Meaning of Money Revisited.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2), 197-202.
- Tang. T.(1995). The Development of a Short Money Ethic Scale : Attitudes toward Money and Pay Satisfaction Revisit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6), 809-816.

Wilhelm, M.S., Varcoe, K., and Fridrich, A.H.(1993). Financial Satisfaction and Assessment of Financial Progress : Importance of Money Attitud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81-198.

Yamauchi, K.T.&Templer, D.I. (1982). The development of a money attitud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 522-528.

#### [기사 및 기타 웹 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http://www.fss.or.kr/edu/main.jsp>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 <http://consumer.fss.or.kr/fss/consumer/main.jsp>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http://fine.fss.or.kr/main/index.jsp>

금융감독원·한국은행(2018)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http://www.fs.or.kr/edu/main.jsp>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 <http://consumer.fs.or.kr/fs/consumer/main.jsp>

농협은행 청소년금융경제교육센터 : <http://youthedu.nonghyup.com/>

미국 점프스타트: <https://www.jumpstart.org/>

법제처 금융소비자보호법 :

[http://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7112,20200324\)](http://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7112,20200324))

서울경제 “우리銀 26일 만기 DLF 투자자, 1억원→192만 원으로” 보도자료.:

<https://www.sedaily.com/NewsView/1VODTV4RBP>

서울신문 “우리은행 DLF 원금 10% 손실 확정...4개월 만에 81억 사라져”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50145&wlog\\_tag3=naver#csidx4e42bfd543d9deb89b524421a1ba7](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50145&wlog_tag3=naver#csidx4e42bfd543d9deb89b524421a1ba7)

한경경제용어사전; 파생결합펀드(DLF) :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4419>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http://ecos.bok.or.kr/>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kif2/main/>



## Abstract

# The Influence of the Attitude toward Money and the tendency toward Materialism on Financial Literacy

Ko Eun-Ae,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im Jeong-sook

This study was intended to measure the level of financial literacy among adults aged 20 to 64 who are active in consumption and analyze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attitude toward money, the tendency toward materialism, and financial liter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attitude toward money and the tendency toward materialism on the financial literac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the basic data for analyzing the attitude toward the money and the tendency toward the money and the financial literacy in adults, conducting financial education or developing programs to improve the financial literacy in adults.

The data of a total of 382 adults aged 20 to 64 living in Seoul, Jeju, and Gyeonggi Province were collected from the date of IRB's approval (Approval No: JJNU-IRB-2020-015-001) until May 31, 2020,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12.0K for Windows.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toward money, the tendency toward materialism and financial liter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test, one-way variance analysis, and Scheffé's multiple range test were conducted;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was conducted; and in order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attitude toward money and the tendency toward materialism on the financial literac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level of financial literacy, the average score in the financial literacy was 59.59 points, the financial attitude was 53.19 points, and the financial behavior was 74.66 point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attitude toward mone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 tendency to consider money as a tool for future safety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financial education; education level, and experiences in the participation in financial education. The tendency to consider money as a tool for emotional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nd experiences in the participation in financial education. The tendency to think of money as nongenerosity and distrus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level of education.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endency of materialism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materiality tendency of pursuing succes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marital status, occupation, and participation in financial education. Significant differences appeared depending on the level of education,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the necessity of financial education.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inancial liter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financial knowledg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occupation, participation in financial education, and whether financial education was needed, and financial attitud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education level,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job, and necessity of financial education.

Fifth,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the relative influence of attitudes toward money and propensity for materialism on financial comprehension, respondents said that financial education requires higher education level,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higher tendency to pursue success. A group showed high scores in financial knowledge. The financial attitude showed a significant effect according to age, and the higher the value of money as an emotional satisfaction tool, the higher the stinginess and distrust, the lower the source of future safety tools and anxiety, the higher the financial attitude score. The group that responded that financial education required financial education had a higher score for financial behavior, and the higher the financial behavior score, the more they thought about money as a source of future security or anxiety and an emotional satisfaction tool.

In this study, the level of financial literacy was measured, and the relative influence of attitudes toward money and propensity for materialism on financial literacy was analyzed. This can be found in that it has suggested a way to improve the financial literacy of adults.

Keyword: Attitude toward money, tendency toward materialism, financial literacy, financial knowledge, financial attitude, financial behavior

부

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돈에 대한 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대상은 20~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내용은 화폐에 대한 태도 및 금융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5~10분 정도입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와 제 34조(통계작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익명 처리되며, 연구 목적 및 통계 분석 이외에 사용되지 않고 연구 종료 후에는 파쇄하여 폐기될 것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응답 도중이라도 중단하실 수 있고 설문 과정에서 위험은 없습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연구 결과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중한 의견을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 응답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0년 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과정: 고은애, 지도교수: 김정숙

문의: ofwisdom01@naver.com

※ 다음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저축하는 편이다.					
2	나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해두고 있다.					
3	나는 계획한 예산에 맞추어 돈을 쓰는 편이다.					
4	나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면 걱정된다.					
5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늘 걱정하는 편이다.					
6	돈의 금액에 상관없이, 돈 쓰는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7	나는 기분전환을 위해 돈을 쓴다.					
8	사고 싶은 것은 현금이 부족하면 신용카드나 할부로 사는 편이다.					
9	돈 지출계획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10	할인하는 상품이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사는 경향이 있다.					
11	물건 구매 후 '다른 데서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하는 생각이 든다.					
12	비싼 물건을 살 때마다 속아서 사는 것 같다.					
13	돈이 있건 없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라는 말을 하는 편이다.					
14	물건을 살 때 가격을 제일 먼저 보고 결정한다.					

※ 다음은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이다.					
2	나는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편이다.					
3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보여준다.					
4	나는 타인의 물질적 소유물에 관심이 없다.					
5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6	나는 고가의 집, 차, 옷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스럽고 부럽다.					
7	나는 호화로운(럭셔리한) 삶이 좋다.					
8	나는 최고급 제품을 갖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편이다.					
9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을 소유하면, 나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10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11	나는 갖고 싶은 것들을 모두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속상하다.					

※ 다음은 금융 행위에 대한 문항입니다. 평소 해당하는 부분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것을 살 여유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한다.					
2	각종 청구대금(공과금, 관리비 등 고지서)을 기일 내 납부한다.					
3	평소 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					
4	장기 재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다음은 금융 태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일상적인 태도와 가까운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오늘만 산다.					
2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다.					
3	상품 구매 시 현금보다 신용구매(신용카드)를 선호한다.					

※ 다음은 금융 지식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맞다	아니다	모르겠다
1	높은 수익 투자는 높은 위험과 같다.			
2	금융투자 상품(펀드, ELS 등)은 원금이 보장된다.			
3	높은 인플레이션은 생활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주식투자 시 다양한 여러 주식을 구매한다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5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6	소액연체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7	타인에 대한 보증은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8	여러 금융회사보다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9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을 쓰지 않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하다.			
10	예·적금 약정금리는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 후 금리는 약정금리보다 낮다.			

※ 다음은 금융 지식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를 하거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물가상승률이 3%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1년 후에 받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지금 돈을 받아서 구매할 경우와 비교하여 어떻겠습니까?

- ① 지금보다 더 많다.                      ② 동일하다.                      ③ 지금보다 더 적다.
- ④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⑤ 모르겠다.

2. 연 2%의 이자를 보장하는 1년 만기 비과세 정기예금에 100만 원을 입금했을 경우 만기 시, 얼마의 금액이 있겠습니까?                      답 : (                      ) 만원

3. 비과세 정기 예금계좌에 100만 원을 연 2%의 복리 이자로 5년 동안 입금해 둔다면, 5년 후 그 계좌에는 얼마의 금액이 있겠습니까?

- ① 110만 원 초과                      ② 110만 원                      ③ 110만 원 미만
- ④ 주어진 정보로는 알 수 없다.      ⑤ 모르겠다.

4. 다음 중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

- ① 펀드상품    ② 퇴직연금(DB)    ③ 은행발행채권    ④ 정기적금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